■대선 득표율로 본 호남 정치 판도

침통…환호 19일 밤 광주시 동구 학동 대통합신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TV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당직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왼쪽〉 이날 밤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도당 사무실을 가득 메운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위직량·최현배기자 jrwi@kwangju.co.kr

범여권 응집력 약화… 한나라 교두보 마련

신당 진로 재설정 불가피할 듯
단일화 무산 책임 민주당 몰락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참패했지만 '범여권의 메카'인 호남 유권자들은 정 후보에게 8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표심의 응집도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 대선에 비해 시들해진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얻은 지지보다 두 배가량 많은 8%대 득표율로, 역시 범여 후보로 분류되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인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이회창 후보는 3%대를 기록해 두 보수진영 후보의 득표율은 10%를 넘어섰다. 지역색과 이념구도의 약화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민들의 범여 단일화 및 통합 요구에도 독자행보를 고수해온 이인제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조차 1~2%의 득표에 그쳐 민주당은 선거 막판 잇따른 탈당 행렬에 이어 사실상 와해 위기에 처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 출신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게 79~83%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40%대 지지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지난 두 차례 대선에 이어 민주평화개혁세력의 3기 집권시대를 열어달라는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표심의 응집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게 사실상 몰표를 던졌다. 광주는 95.2%, 전남은 93.3%, 전북은 91.6%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97년 15대 대선에서도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는 광주에서 97.3%, 전남에서 94.6%, 전북에서 9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집력의 약화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범여권 단일화 무산 등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저하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투표율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참패로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호남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넉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선 전국 득표율로 보면 의회 권력마저 고스란히 보수진영에 넘겨줄 공산이 높아 신당은 물론 범여권 진영 전체가 정치적 진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8~9%대의 득표율로 지난 2002년 16대 대선때의 4.2%(광주 3.6%, 전남 4.6%), 1997년 15대 대선때 2.6%(광주 1.7%, 전남 3.2%)에 비해 두 배 가까운 표를 얻었으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는 물론 두 자릿수 득표에도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비록 두 자릿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호남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게 35% 이상의 고른 지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호남의 정치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인제 후보가 '텃밭'이었던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0.7~2.4%의 표를 얻는데 그쳐 그야말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전남 시·군·구별 신당·한나라당·민주당후보 득표현황

• 광주 (개표율:100%) ※( )안은 득표율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동구	43,391(78.2)	5,450(9.8)	839(1.5)
서구	114,717(79.4)	13,004(8.9)	1,374(0.9)
남구	80,271(79.0)	9,616(9.5)	1,318(1.3)
북구	176,435(80.0)	18,291(8.3)	2,236(1.0)
광산구	112,774(80.7)	10,514(7.5)	1,351(0.9)

• 전남 (개표율:98.6%) 〈20일 0시 현재〉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목포시	83,225(80.0)	9,604(9.2)	1,518(1.4)
여수시	109,765(78.9)	13,489(9.6)	2,197(1.5)
순천시	97,384(77.7)	12,177(9.7)	1,995(1.5)
나주시	41,506(80.6)	3,920(7.6)	1,713(3.3)
광양시	43,204(69.1)	9,013(14.4)	1,130(1.8)
담양군	23,872(83.5)	1,974(6.9)	519(1.8)
장성군	22,841(79.9)	2,500(8.7)	589(2.0)
곡성군	15,521(81.8)	1,247(6.5)	480(2.5)
구례군	12,480(78.2)	1,448(9.0)	370(2.3)
고흥군	34,207(78.1)	4,003(9.1)	2,401(5.4)
보성군	20,610(74.4)	3,213(11.6)	1,033(3.7)
화순군	28,138(79.4)	2,632(7.4)	924(2.6)
장흥군	19,730(75.9)	2,216(8.5)	884(3.4)
강진군	16,564(75.7)	2,265(10.3)	673(3.0)
완도군	24,615(81.6)	2,132(7.0)	1,171(3.8)
해남군	24,733(79.2)	2,346(7.5)	1,207(3.8)
진도군	15,164(81.4)	1,598(8.5)	413(2.2)
영암군	24,145(77.9)	3,031(9.7)	687(2.2)
무안군	26,267(81.1)	2,703(8.3)	859(2.6)
영광군	25,768(81.0)	2,466(7.7)	471(1.4)
함평군	17,937(82.2)	1,643(7.5)	640(2.9)
신안군	19,173(81.5)	2,025(8.6)	626(2.6)

3연속 '상고 출신 대통령' 진기록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5, 16, 17대 대통령이 모두 상고 출신으로 이어지는 진기록이 작성됐다.

이명박 당선자는 포항 동지상고 출신. 물론 그는 고교졸업 후 고려대에 진학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처럼 정규학력이 '고졸'인 다른 상고출신 대통령들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상고 출신 대통령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15대 김대중 대통령. 목포상고 출신의 김 전 대통령은 직계 가계에 크게 출세한 사람이 없던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의 3대 출세 조건인 지연, 학연, 혈연의 3대 장벽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뒤이어 16대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당시 후보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다.

명문고, 명문대 출신들이 견고하게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우리 사회에서 상고 출신이 세번 연속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은 온갖 시련과 불리함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룬 인생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비주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세 대통령이 졸업한 상고의 지역이 U자 형태를 그리며 서-남-동해순으로 북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상고가 어디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연합뉴스

총선 겨냥 'BBK 특검' 격랑

■대선 이후 정국 기상도

李당선자 기소땐 대혼돈
정치권 이합집산 불보듯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7대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대선 이후의 정국은 오히려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내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할 전망인데다 'BBK 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 정국 기상도를 살펴본다.

◇'BBK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대선 이후 진행될 'BBK특검'과 '삼성 비자금 특검'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BBK 특검'은 결과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는 대형 변수인데다 내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BBK 특검'의 수사 결과, 이 당선자가 확실한 불법행위 등으로 기소된다면 대선이 다시 치러지면서 정국은 대혼돈 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또한, 기소되지 않더라도 이 당선자가 BBK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범여권에서는 총선을 의식,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부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BBK 특검'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범여권은 정쟁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못지 않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정국 주도권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한나라당은 18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삼성 비자금 특검'도 결과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특검 결과 소위 '당선축하금' 의혹 등이 밝혀질 경우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지각 변동= 대선 결과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의 '빅뱅'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참패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의 심각한 분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승리라는 명분을 위해 한 지붕에 있었던 '친노 세력'이 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당정에 걸친 안정적인 장악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압도적 대승을 이뤘다는 점에서 'BBK 특검'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15%대의 기대 이하의 득표율에 그쳤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이회창+박근혜' 시나리오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더욱 굳은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과 당권 등의 문제로 '이명박 진영 대 박근혜 진영'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이회창 신당과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결합하면서 내년 총선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0.6%대의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한 이인제 후보의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6%대의 지지율에 그친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도 정치적 자립 기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재편과정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3%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권영길 후보의 민주노동당도 대선 이후 상당한 내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BQ 매상 올랐다" "이회창 찍으면 자살골"

■대선전 말… 말… 말…

대선 후보들은 지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대장정에서 다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날 선 공격을 방어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창과 방패의 유세 전쟁을 벌였다. 17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남긴 이색 어록을 정리해본다.

◇이명박

▲(나는) 주가조작에는 기술도 재주도 없다.(11월 29일 불교방송 토론회에서) ▲통닭집 BBQ가 있는데 매상이 올라갔다고 한다.(12월 4일 인천 간담회에서) ▲12번 찍는 게 1번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12월 13일 부산 유세에서) ▲특검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사슴을 말이라 우길 수는 없다.(12월17일 선거방송연설에서 BBK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동영

▲이명박을 찍는 것은 백패스, 이회창을 찍는 것은 자살골, 정동영을 찍는 것은 미래로 가는 것이다.(12월1일 도봉산 유세에서) ▲한국이 후진기어 아닌 전진기어를 넣고 달리려면 역시 해답은 거짓말, 탈세 안한 정동영 뿐이다.(12월2일 용산역 유세에서) ▲국민은 재산환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의 환원과 자백, 고백을 원한다.(12월7일 MBC 방송연설에서)

◇이회창

▲앞으로는 '기호 꼴찌 이회창' 이렇게 얘기해 달라.(11월30일 청량리역 앞 유세에서) ▲지난 번 대구에서 계란 마사지를 받아 얼굴이 좀 예뻐졌다. (12월8일 광주 유세에서)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게 '왜 네거티브를 하느냐'는 것과 뭐가 다르냐.(12월16일 TV토론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며) /연합뉴스